



군산대, 국립대학 육성사업 제2기 학생기자단 수료식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상호)는 지난 3일, 국립대학 육성사업 제2기 학생기자단 수료식을 개최했다. 제2기 학생기자단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 소식을 카드 뉴스와 영상으로 제작해 대학 공식 SNS에 업로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를 통해 대학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MZ세대가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SNS를 활용해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를 게시함으로써 입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했다. 또한, 최근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콘텐츠 제작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편, 제3기 학생기자단을 오는 3월에 모집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이나현 소방장, 채한석 소방교, 정승원 소방사

순창119안전센터, 신속 대처로 새 생명 출산 도와

순창소방서는 4일 3시 48분경 순창군 인계면 소재 출산이 임박한 산모의 '아기의 머리가 보인다'는 신고로 출동해 새 생명의 출산을 도왔다고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순창119안전센터 구급대원(소방장 이나현, 소방교 채한석, 소방사 정승원)은 아기가 수건에 덮인 채 보호자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산모와 아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긴급 상황임을 판단했다. 이후 의료지도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차량에 비치된 분만 세트를 이용해 제대 결찰과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며, 아기의 활력징후를 확인 후 산모와 신생아(남)를 안전하게 남원의료원으로 이송했다. 김준희 현장대응단장은 "평소 꾸준한 분만 응급처치 역량 교육과 실습으로 긴급한 상황에서도 구급대원들의 침착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이 건강하게 탄생했으며, 아기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장수소방서, 건물 화재 시 완강기 사용법 홍보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건물 화재 발생 시 계단 등으로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높은층에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등 건축물 3층에서 10층까지 층마다 1대 이상 설치되어있다. 사용법은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지지대를 청백으로 위치시키기 △로프가 감겨있는 릴을 창밖, 내려갈 곳을 향해 내리기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걸고 안전고리 조이기 △창틀/난간에 걸터앉기 △두 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내려오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대 에너지신산업혁신융합대학 학생들 '교육부장관상'

중소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저감 최적 운전 방안 연구 '우수' 기업과 함께 문제 탐색→문제 해결→취업 연계 모델 '성과'

전북대학교 에너지신산업혁신융합대학 학생으로 구성된 'VE 팀'이 최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WE-Meet Awards'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VE 팀'은 공과대학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환경공학전공) 김현우 교수 연구실 소속 조서현(팀장), 송은서, 유기민 학부생과 기업 멘토인 ㈜그룹 이인호 대표, 이태훈 팀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SBR 공정을 활용한 소규모 하수처리공정 최적화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GPS-X를 활용해 디지털 기반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통계 기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 효율과 탄소배출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운영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WE-Meet 프로젝트'는 산학 협력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기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며 현장 직무 역량을 키우고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8개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856팀(4,051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8개 팀이 교육부장관상을, 13개 팀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상했다. 전북대 에너지신산업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WE-Meet



프로젝트를 통해 21개 학부 연구 프로그램, 18개 캡스톤디자인 팀, 3개 WE-Meet 팀을 선발, 지도교수와 기업 멘토링, 연구비, 학점 연계, 국내외 학회 발표 등을 지원하며 산업체 연계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김현우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기업 네트워크 확장과 지역 맞춤형 현장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업체와 협력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WE-Meet 프로젝트는 재직자 멘토링과 지역 문제 해결을 자연스럽게 접목해 학생들이 산업계의 실제 문제를 직접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산학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군산 흥천사, 올해도 어려운 이웃 위한 사랑의 백미 기탁

해신동복지센터에 백미 50포 기탁

군산 흥천사(주지 법운스님)가 올해도 이웃을 위한 사랑의 백미를 해신동에 전달했다. 지난 3일 해신동복지센터는 백미(10kg) 50포(150만원 상당)를 흥천사에서 기탁받았다고 전달했다. 흥천사는 군산의 대표적인 사찰로 수년 동안 나눔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기부받은 백미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법운 주지스님은 "재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라며, 2025년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를 보내길 기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미영 해신동장은 "잊지 않고 매년 쌀을 기탁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받은 백미는 도움이 손길이 될



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지역 폭설·한파에 대비 강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4일 폭설과 한파로 인한 기상특보에 따라 새만금지역 내 건설 현장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 대비에 돌입했다. 4일 현재 부안군은 대설경보, 군산시와 김제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5일까지 전북 서해안권 일부 지역은 3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지역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남북·동서 도로, 방조제 도로, 산업단지 내 도로 등 총 97km에 걸쳐 제설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내 공사 현장과 주요 시설물은 안전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새만금 지역 주민과 기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겨울철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장수경찰서·자율방범대, 두루두루-치매안심 순찰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는 4일,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장수의 특성을 반영한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장수읍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두루두루-치매안심 순찰'을 실시했다. 장수파출소 등 7개 파출소는 주 1회, 각 지대 자율방범대와 마을회관 1개소를 거점근무장으로 지정하고, 해당마을 치매노인 가정을 방문하거나 주변을 순찰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루두루 치매안심 순찰'은 현재까지 총 18회, 28명 대상 치매노인 실종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홍훈 서장은 "치매안심 합동순찰이 치매노인 실종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방범대 대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 내장상동, 36개 경로당 보조금 정산 검사 마무리

정읍시 내장상동이 3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반기 보조금 정산 검사를 완료하며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갔다. 이번 검사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집행 과정의 투명성은 확보됐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내장상동은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하반기 정산 검사 결과, 집행 잔액 등 총 256만 2000원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로당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4 columns: 전주지사, 중앙지사, 남원지사, 임실지사, 삼천지사, 인후지사, 김제지사, 진안지사,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정읍지사, 536-3787,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인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호신지사, 010-8645-9335, 익산지사, 868-9923, 고령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